

도서관 예산과 도서관 이용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ibrary budget and Library Usage

김 선 애 (Sun Ae Kim)*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이용과 도서관예산 사이에 영향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잠재적 이용자들을 도서관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적정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있다. 다시 말해, 도서관예산은 도서관이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설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 공공도서관 31개관을 대상으로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으로부터 확보된 2013년 통계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독립변수는 도서관예산을 설명하는 '총비용지수(TFI: Total Funding Indicator) = $\sqrt{\text{인건비} \times \text{자료구입비}}$ '와 도서관이용을 나타내는 'LU(Library Usage) = (연간 방문자수) + (연간 대출자료수) / 봉사대상인구'의 개념을 통해 산출된 값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도서관총비용지수(TFI)와 도서관이용(LU) 사이에는 영향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서관의 예산이 증가할수록 도서관이용은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비록 도서관예산과 도서관이용의 긍정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만, 분석대상 및 분석기간의 제한성 및 한정성으로 인해 정책결정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대상의 확대 및 분석기간의 다년화를 통한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the necessity of secure budget in public libraries with regard to promoting library usage. It is namely to attempt to find out if there really is a connection between library funding and library usage. For this purpose, the relevant data of all the 31 public libraries in Busan were collected from the 2013 National library Statistics of Korea. To determine the connection between library funding and usage, two variables were selected, 'TFI (Total Funding Indicator) = $\sqrt{\text{personnel costs} \times \text{material costs}}$ ' for independent variable and 'LU (Library Usage) = (visits per year) + (loans per year)/number of inhabitants' for dependent variable.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is a clear relationship between TFI and LU and If more cost is spent on personal resources and material resources, the total usage of the public library also increase. The findings are limited due to the fact that the observation was focusing on public libraries in one community and the period of observation was one year in 2013.

키워드: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이용, 도서관이용, 도서관총비용, 도서관자원

Public Libraries, Public Library Usage, Library Usage, Library Total Funding, Library Resources

* 경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kimsa@ks.ac.kr)

논문접수일자 : 2016년 5월 23일 논문심사일자 : 2016년 6월 6일 게재확정일자 : 2016년 6월 16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2): 193-212, 2016.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6.27.2.193]

1. 서론

많은 사람들은 도서관에 가거나 혹은 도서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자주 혹은 가끔 필요한 일들을 한다. 도서관에 가서 책과 DVD를 빌리거나 또는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교육·문화·교양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기도 한다.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찾기도 하고, 한가롭게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때론 돈 들이지 않고 하고 싶었던 취미생활 또는 구직 활동을 한다. 이외에도 조용히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전자책을 다운받아 읽을 수 있는 곳이 도서관이다. 이처럼 도서관은 우리 일상에서 그리고 삶의 전반에서 기꺼이 우리를 지원한다. 우리는 가까운 공공도서관 어디에서든 어린이와 부모들이 스토리텔링에 참여할 수 있고, 청소년들은 독서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지역의 구직자들은 새로운 도전을 위해 공부를 할 수도 있다.

지난 5-6년 동안 우리나라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사회·문화·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공도서관 건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2008년 644관에 머물던 공공도서관의 수가 2013년 865관으로 34%의 성장을 기록했다. 공공도서관의 외적성장으로 인해 지리적으로 또는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사회조사'에 의하면 한국인 100명 가운데 44명은 지난 1년 동안 단 한권의 책도 읽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책을 읽지 않는 국민의 숫자로는 2000년대 들어 최저치다. 세대별로 책을 전혀 읽지 않는

인구비율을 보면, 30대까지는 10명중 3명, 40대는 10명중 4명, 50대는 10명중 5명, 60세 이상은 10명중 7명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지난 10년간 사회조사 통계에서 독서인구비율은 60% 안팎을 유지했었지만 2015년 조사에 의하면 56.2%를 기록하며 2년 전보다 무려 6.2%포인트 하락했다.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일견 위험하지만, 이는 공공도서관의 시설을 확대하면 지역주민들의 공공도서관이용 및 독서활동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벗어나고 있다. 지역의 공공도서관들은 지역주민의 독서 증진을 위해 그리고 도서관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지역주민을 공공도서관 이용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중요하게 투입되어야 할 요소는 무엇일까?

공공도서관의 이용요인에 대한 연구는 여러 차례 진행되어 왔다(박옥화 2007; 최희곤 2009; 이희수, 김기영 2014). 언급된 연구들이 대부분 특정지역이나 특정대상 혹은 집단에 국한하여 공공도서관의 이용요인을 밝히고자 한 반면, 최근에 진행된 권나현, 송경진(2014)은 전국의 시민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 이용요인 및 이용정도를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공공도서관의 이용을 한 측면에 한정하여 파악하지 않고, 개인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용하는 개별도서관의 서비스 자원투입 및 산출 그리고 지역사회의 도서관에 대한 투자 특성 등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도서관의 이용정도와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공공도서관의 이용요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여 이를 이용자서비스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보다 생산성 높은 산출

을 위해 투입요소와 그 정도를 결정해야 하는 도서관의 의사결정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다양한 요인의 발견은 의사결정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도서관의 위치에 따라 혹은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이 또는 혁신적인 서비스의 도입이 또는 친절한 사서가 이용자들을 도서관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한다. 틀린 설명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모든 다양한 요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도서관 경제, 즉 도서관에 투입되는 예산은 도서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미친다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지방정부의 예산축소로 많은 공공도서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다 폭넓은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공간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 등 활동영역 역시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전히 공공도서관을 지역사회의 필수적인 또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며, 공공도서관의 지속적인 성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221개의 신규도서관이 생겨났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20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공공도서관의 예산은 일시적인 반등이 있었던 때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적어도 도서관의 사서들은 이러한 사실이 도서관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있다. 과연 이들의 의견이 맞는 걸까? Stabell (2015)은 노르웨이 오프란(Oppland) 주의 26개 공공도서관의 통계데이터를 분석하여 도서관 이용과 자원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노르웨이

에서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게 된 계기는 공공도서관 예산의 지속적인 감소에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공공도서관의 예산은 지난 10년간 계속 감소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공공도서관의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거라 생각하여 26개 공공도서관의 과거 10년간의 통계데이터를 갖고 장·단기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도서관예산과 도서관이용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노르웨이의 상황과 국내 공공도서관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에 주목하여 Stabell의 연구가설을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에 적용하여 도서관예산과 도서관이용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이 둘의 영향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2014년 국가도서관통계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에는 공사립을 불문하고 31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다. 대부분의 공공도서관들은 매년 예산배정을 결정하는 시기가 되면 교육청 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서관활동에 필요한 적절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은 도서관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많은 연구를 진행해왔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도서관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찾아내어 의사결정권자들이 도서관 이용증진을 위한 개선방향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의 예산과 도서관이용과의 관계에 집중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예산이 도서관이용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는 도서관 이용요인을 설명하려고 시도한 연구들 혹은 도서관이용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 몇몇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대전지역 고령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의 이용에 관한 내용을 분석한 박옥화(2007)의 연구가 있다. 박옥화는 고령자들의 연령, 학력, 생활수준과 직업, 건강 상태, 일과 활동 등과 같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도서관 최초 이용 시기, 도서관 방문시의 교통수단과 소요시간, 도서관 체류시간, 이용 빈도, 자료대출수, 이용목적 등과 같은 도서관 이용패턴과의 연관성을 분석함으로써 이용자의 개별적 특성과 도서관이용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차원에서 보면 고령 이용자 중에서 비교적 젊은 이용자인 60대의 신체가 건강하고, 학력이 높고 그리고 생활수준이 평균 이상인 노인들이 도서관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의 공공도서관 이용패턴은 비교적 자주였으며, 한번 방문했을 때 도서관에 머무르는 시간이 장시간이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도서관 이용이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응답하였다.

최희곤(2009)은 서울지역 55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의 인적, 물적, 서비스, 기타 시설 등과 같은 투입자원을 사용하여 자원간 혹은 도서관이용과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인적자원은 사서수와 직원수를 사용하였으며, 장서자원은 장서수와 연간증서수

를 예산은 자료구입예산과 총예산, 서비스자원은 문화프로그램 실시횟수, 그리고 기타 자원으로는 좌석수, 도서관 연면적, 개관일수, 개관 경과년도 등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 기타 시설자원인 좌석수가 도서관 이용자수와 가장 큰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연면적과 사서수 역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연구들이 특정 이용자의 개인적 특성과 도서관 이용과의 관계 혹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공도서관 투입자원들의 특성과 도서관 이용과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이희수와 김기영(2014)은 특정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지역별 특성과 연관 지어 그 지역 주민의 도서관 이용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인천지역 공공도서관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서관 이용형태, 도서관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지역사회 평가, 서비스만족도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들 항목들이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저자들은 인천지역의 특성을 구도심, 신도심, 도·농복합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도서관 이용형태, 도서관에 대한 인식, 도서관서비스 등에 대한 만족도에서 이들 지역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구도심 및 도·농복합지역 주민들보다 신도심의 주민들이 공공도서관의 다양한 기능들을 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고, 구도심이나 신도심 거주자들보다 도·농복합지역 거주자들이 도서관 이용을 꺼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불편한 접근성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특정 대상이나 특정지역

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의 이용을 분석한 것과 달리 권나현, 송경진(2014)은 우리나라 성인들의 공공도서관이용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전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18세 이상 일반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통해 성인 개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도서관 이용에 관한 내용을 확보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된 내용을 토대로 개별 이용자가 이용하는 도서관 서비스 자원의 투입 및 산출, 거주하고 있는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크기, 투자 수준 등과 도서관 이용과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2013년 국가도서관 통계를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성인들의 공공도서관방문은 인구가 많은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독서량이 많은 개인이 일상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소 규모의 새로 건립된 공공도서관으로 조사되었다. 특이사항으로는 도서관의 이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장서나 시설관련 요인보다는 이용자 개개인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확보정도가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의 연구가 도서관의 투입요인, 이용자 개인의 특성, 지역사회의 특성 등과 연관된 도서관의 이용에 초점을 둔 것과 달리, 외국의 경우 경제학적 관점에서 책의 수요 또는 도서관의 대출 수요 혹은 이용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도서관이용과는 거리가 있는 연구지만 Ringstad and Loyland(2006)는 책값이 책이용(수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계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986-1999년 동안 노르웨이의 1,800가구 이상의 소비데이터를 분석하여 책의 수요를 분석하였다. 결과는 수요

탄력성이 약 1.3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책의 수요는 가격에 꽤 민감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른 문화상품으로의 대체재가 되기 쉬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적 관점을 확대하여 Loyland and Ringstad (2008, 2011)는 노르웨이와 스페인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자료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공공도서관으로부터 책을 대출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출을 결정지을 수 있는 요인을 4가지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경제적인 변인 즉, 수입, 여행 시간 등 둘째, 도서관의 특성 요인, 즉 소장자료, 새로운 자료 및 미디어의 종수 등, 셋째 사회 인구학적 요인, 즉 나이 및 성별 등의 분포 등 넷째, 기타 요인으로 거주지역의 규모 등이다. 노르웨이의 2001-2004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성인과 어린이들 사이에는 책을 대출하는 주요 요인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있었다. 책의 대출요인으로 수입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책의 암묵적 가격이 어린이들에게는 전혀 중요한 요인이 아닌 반면 성인들에게는 중요한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같은 목적으로 스웨덴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1995-2007년 동안의 인쇄자료와 미디어 자료의 대출을 결정짓는 요인 또한 분석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스웨덴 공공도서관의 도서 및 미디어의 대출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가장 빈번한 대출자이지만 이들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는 가장 자료를 이용하지 않는 그룹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Vakkari et al.(2014)는 핀란드, 노르웨이 그리고 네덜란드 3국간의 삶의 주요 영역에서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태도와 그 구조를 비교·분

석하는 연구를 하였다. 이를 위해 데이터 수집은 18세에서 80세까지의 성인 도서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핀란드)와 웹 설문조사(노르웨이, 네덜란드)를 사용하였으며, 혜택과 관련하여서는 요인분석에 의한 국가간 비교를 수행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직업 및 일(Work and business) 관련 3개 항목, 교육(Education) 관련 4개 항목, 일상생활(Everyday activities) 관련 7개 항목, 문화 생활(Cultural activities) 관련 8개 항목 등 4영역에서 총 22개 항목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혜택 분석은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갖고 19개 영역에서 실시되었다. 비교·분석된 영역은 구직(finding jobs), 일 관리(work tasks), 직무기술(job skills), 교육기회(education opportunity), 독학(self-education), 가정 일(household work), 육아(child care), 주택(housing), 소비자 관점(consumer issues), 건강(health), 여행 및 휴가(travel & vacation),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 독서흥미(fun in reading), 문화생활(cultural activities), 야외 활동(outdoor activities), 역사 및 사회(history & society), 사회적 논의(societal discussion), 창조적 활동(creative activities) 등이다. 관찰된 19개 영역에서 이용자들이 인식하는 혜택의 수준이 3국 모두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핀란드는 노르웨이, 네덜란드와 비교하여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혜택의 범위가 현저하게 높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저자들은 이러한 결과는 다른 두 나라와 비교하여 핀란드의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 두 나라와 비교하여 많은 것이 공공도서관으로부터 파생되는 혜택에서의 인식차이를 발생시

켰다고 진단하였다. 이들이 진행한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전반적인 혜택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틀을 제공하였다. 주목할 점은 저자들은 국가별로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혜택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소를 도서관 서비스에 투자된 자원 즉, 예산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Stabell(2015)은 노르웨이 오픈란(Oppland) 주의 26개 공공도서관의 통계데이터를 중심으로 도서관 이용과 도서관 자원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도서관의 인건비와 자료구입비를 지수화한 총비용지수(Total Cost Indicator)라는 변수와 도서관이용이라는 변수를 사용하여 도서관예산이 이용자들의 도서관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Vakkari et al.(2014)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공공도서관의 자원은 도서관이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이용자 혹은 잠재적 이용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포함한 개인적 요인에 근거하여 공공도서관 이용요인을 분석했거나, 도서관의 인적, 물적, 시설 및 환경적 자원에 근거하여 공공도서관 이용을 분석했거나 혹은 이러한 요소들과 더불어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특정지역이나 대상이 아닌 시민을 대상으로 개인의 사회경제학적 특성, 도서관 투입자원의 정도 및 특성, 지역사회 도서관 투자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한 공공도서관 이용요인 등을 분석한 최근의 연구도 있었다. 이처럼 많은 연구자들은 도서관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많은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단순하게 도서관이용과 자원

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는 Stabell(2015)의 연구 외에는 드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르웨이 오픈란(Oppland)주의 26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던 Stabell의 연구처럼 부산지역 31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예산과 도서관이용과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3. 도서관 예산 및 이용 관련 변수 선정

3.1 공공도서관 현황

본 연구는 도서관이용과 도서관예산과의 관

계를 설명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이를 위해 부산 지역 공공도서관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도서관통계자료에 의하면 1관당 평균 예산결산액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6개 시도 중에서 10개 시도가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했으며, 1관당 예산결산액이 가장 높은 경기도는 가장 낮은 강원도와 비교하여 1관당 예산이 2.34배 많다. 물론 지역적인 특성, 봉사대상 인구규모, 지역경제의 형편, 도서관의 규모, 직원수 등의 차이가 있어, 1관당 평균 예산만을 갖고 광역자치단체별 공공도서관의 투자수준이 높다 혹은 낮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표 1> 1관당 평균 예산결산액

(단위: 백만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국	862	804	775	838	861
서울	806	844	698	709	716
부산	1,096	906	1,003	1,234	1,148
대구	1,216	922	918	785	964
인천	1,147	1,113	882	870	788
광주	1,078	1,168	1,234	1,143	1,263
대전	881	823	782	871	873
울산	923	738	790	957	979
경기	1,276	1,047	1,090	1,202	1,267
강원	522	531	521	498	542
충북	615	607	628	973	554
충남	470	478	566	619	740
전북	895	706	607	871	724
전남	692	585	580	590	646
경북	549	609	618	598	594
경남	807	873	672	746	795
제주	520	645	532	560	604

출처: 2014년도('13년 실적) 공공도서관통계조사 결과보고서, 2014. p.42.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2009년 8억 6천 2백만 원이었던 1관당 평균 예산 결산액은 3년간 하향세를 유지하다가 2012년부터 회복세를 보여 2013년에는 2009년의 수준인 8억 6천 1백만 원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광역시가 5년 동안 지속적인 감소 추세라기보다는 한 해 혹은 두 해 상승세를 보여

주고 있는 반면 서울, 대구,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도서관통계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에는 공사립 및 운영주체를 불문하고 31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다. <표 2>는 부산광역시 공공도서관의 봉사대상인구, 회원등록자수 그리고 공공도서관

<표 2> 부산광역시 공공도서관의 봉사대상인구 및 회원등록자 현황

지역	도서관명	봉사대상인구(A)	회원등록자수(B)	A/B(%)
강서구	부산 강서도서관	69,873	16,044	22.96
금정구	시립서동도서관	253,526	27,123	10.70
	금정도서관	253,526	90,311	35.61
기장군	기장도서관	132,507	39,160	29.55
남구	남구도서관	291,770	74,686	25.60
동구	시립중앙도서관수정분관	96,011	10,751	11.20
	동구도서관	96,011	20,749	21.61
동래구	시립명장도서관	276,689	62,029	22.42
부산진구	시립시민도서관	389,765	218,677	56.11
	시립부전도서관	389,765	94,821	24.33
	시립중앙도서관분관 영어도서관	389,765	12,259	3.15
북구	맨발도서관	309,719	8,233	2.66
	시립구포도서관	309,719	86,033	27.78
	북구디지털도서관	309,719	52,215	16.86
	화명도서관	309,719	53,846	17.39
사상구	사상도서관	246,979	52,334	21.19
사하구	시립사하도서관	349,110	46,186	13.23
	다대도서관	349,110	30,201	8.65
서구	시립구독도서관	118,783	31,288	26.34
수영구	수영구도서관	175,098	58,364	33.33
	수영구도서관망미분관	175,098	11,796	6.74
연제구	시립연산도서관	209,290	39,249	18.75
영도구	영도도서관	135,816	59,946	44.14
	영도어린이영어도서관	135,816	440	0.32
중구	시립중앙도서관	47,345	73,453	155.14
해운대구	느티나무도서관	425,536	1,424	0.34
	시립반송도서관	425,536	35,393	8.32
	해운대도서관_우동분관	425,536	50,790	11.94
	시립해운대도서관	425,536	72,417	17.02
	반여도서관	425,536	31,469	7.34
	재송어린이도서관	425,536	38,652	9.08
1관당 평균		270,121	48,398	22.90

자료: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http://www.libsta.go.kr/index.do>

의 봉사대상인구 대비 도서관 회원등록자수의 비율을 보여준다. 봉사대상인구는 지역 규모에 따라 증구에 소재한 부산광역시립 중앙도서관의 47,345명에서 해운대구에 소재한 반송도서관을 비롯한 5개 공공도서관은 425,536명으로 지역구의 인구규모에 따라 그 편차가 매우 크다.

봉사대상인구가 가장 많은 해운대구는 6개의 공공도서관이, 두 번째로 인구규모가 큰 부산진구는 3개의 공공도서관이 그리고 세 번째의 인구규모를 가진 북구는 4개의 공공도서관이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회원등록자 현황을 살펴보면 시립중앙도서관이 특이하게 봉사대상규모보다 많은 수의 회원수를 거느리고 있다. 봉사대상규모와 비교하여 30%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도서관은 부산시립시민도서관(56.11%), 영도도서관(44.14%), 금정도서관(35.61%) 그리고 수영구도서관(33.33%)이다. 물론 부산광역시는 운영주체에 관계없이 공공도서관간 통합대출을 실시하고 있어 봉사대상규모와 회원등록자를 단순 비교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으나, 공공도서관 이용패턴을 분석하면 반경 2km 이내 혹은 멀어도 5km 내외의 이용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이는 무시될 수는 없는 수치이다.

3.2 도서관 예산관련 변수

도서관이용과 예산 사이에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부산광역시 31개 공공도서관의 2013년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국가도서관통계로부터 추출하였다. 도서관 예산과 도서관이용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데이터의 사용가능성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비교 가능하다고 요구되는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국가도서관통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관련 변수로는 인건비, 자료구입비, 운영비 및 이들 비용을 모두 합한 총 비용이 있다. 우선적으로 인건비가 고려될 수 있다. 높은 인건비 비용은 개관시간을 더 길게 가져갔다거나 혹은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및 활동을 의미할 수 있기에 이는 도서관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표 3>의 내용에 따르면, 2013년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1관당 인건비 비용은 6억 5천 7백 6십여 만원이었으며, 도서관 비용 중에서 인건비의 비중은 54.7%를 차지했다.

인건비 외에 자료구입비도 도서관이용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높은 자료구입비는 이용자 요구에 맞는 자료의 양적·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이는 대출 순환 주기의 단축 및 대출 증가를 가져올 수 있기에 이용자들의 잦은 도서관이용을 유도할 수 있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2013년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1관당 자료구입비는 1억 3천 9백 8십여 만원이었으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도서관 비용 중에서 자료구입비의 비중은 11.6%를 차지했다. 또한 운영비의 비중은 도서관 비용 중에서 33.6%를 차지했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으로부터 확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산관련 변수는 인건비, 자료구입비, 운영비 그리고 이들 비용을 모두 합한 총 비용이 있지만 도서관이용과 예산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변수로는 인건비와 자료구입비가 최적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두 요소를 사용함에 있어 노르웨이 오

〈표 3〉 부산광역시 공공도서관 2013년 예산액

(단위: 천원)

도서관명	인건비	자료구입비	운영비	TFI*
부산 강서도서관	399,154	89,418	68,645	188,922
시립서동도서관	953,480	229,992	310,811	468,287
금정도서관	1,088,871	146,858	466,431	399,887
기장도서관	620,829	117,260	258,227	269,812
남구도서관	1,165,601	146,808	458,975	413,666
시립중앙도서관수정분관	494,594	91,544	291,249	212,784
동구도서관	323,200	63,168	277,808	142,884
시립명장도서관	57,600	135,112	295,570	88,218
시립시민도서관	3,040,811	551,612	1,870,934	1,295,125
시립부전도서관	102,960	230,740	358,045	154,133
시립중앙도서관분관_영어도서관	365,670	59,988	124,821	148,107
맨발도서관	55,000	13,660	122,000	27,410
시립구포도서관	1,671,589	350,956	722,535	765,934
북구디지털도서관	536,970	112,848	281,193	246,163
화명도서관	282,600	153,388	1,075,165	208,201
사상도서관	606,206	91,892	279,006	236,020
시립사하도서관	60,600	150,296	282,638	95,436
다대도서관	156,461	107,320	1,126,737	129,582
시립구독도서관	966,610	138,416	700,442	365,779
수영구도서관	619,018	89,756	433,708	235,713
수영구도서관망미분관	178,706	60,948	104,410	104,364
시립연산도서관	991,366	133,052	309,095	363,185
영도도서관	698,140	94,520	163,039	256,882
영도어린이영어도서관	91,845	30,900	96,946	53,273
시립중앙도서관	1,657,621	169,718	416,071	530,404
느티나무도서관	32,000	22,750	24,000	27,066
시립반송도서관	901,200	133,798	248,550	347,245
해운대도서관_우동분관	251,749	80,591	91,637	142,438
시립해운대도서관	1,178,492	342,958	934,172	635,746
반여도서관	476,409	79,538	152,919	194,660
제송어린이도서관	360,701	116,898	224,315	205,342
1관당 평균	657,615	139,894	405,487	288,796

*TFI(Total Funding Indicator): $\sqrt{\text{인건비} \times \text{자료구입비}}$

자료: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http://www.libsta.go.kr/index.do>

플란(Oppland)주의 26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도서관이용에 이 두 요소가 보다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두 개의 변수를 사용함에 있

어 물론 두 변수를 각각을 독립변수로 사용할 수 있지만 도서관이용과의 관계에서 예산관련 변수 산출을 위해 '총비용지수(Total Funding Indicator, 이하 TFI)'개념을 사용하였다. 총비

용지수(TFI)란 인건비와 자료구입비를 곱한 값의 루트 값을 말하며,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이처럼 두 변수의 더한 값이 아닌 곱한 값을 사용하는 것은 두 변수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변수 각각의 중요도를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text{총비용지수(TFI)} = \sqrt{\text{인건비} \times \text{자료구입비}}$$

이 정의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31개 공공도서관의 총비용지수(TFI)를 산출하였다(〈표 3〉 참조). 총비용지수(TFI)가 가장 높게 나타난 도서관은 부산시립시민도서관이었으며, 그 다음은 부산시립구포도서관, 부산시립해운대도서관 그리고 부산시립중앙도서관의 순으로 나타났다. 1관당 평균 총비용지수(TFI)는 2억 8천 8백8십여 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31개 도서관 중 평균보다 낮은 총비용지수(TFI)를 가진 도서관이 21개관이다.

3.3 도서관 이용관련 변수

국가도서관통계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도서관 이용에 관련된 데이터는 도서관방문자수, 자료실 이용자수, 대출책수가 있다. 〈표 4〉에 의하면,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1관당 연간 대출책수는 245,509책이었으며, 1관당 연간 도서관방문자는 580,584명이었으며, 자료실 이용자수는 434,848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순히 도서관 방문자를 기준으로 자료대출의 정도를 보면, 만

약 중복이용 및 다권 대출이 없다고 가정하면 도서관방문자의 42.3%가 1권의 자료를 대출했다고 볼 수 있다.

도서관이용과 예산과의 분석에 확보될 수 있는 도서관이용 관련 모든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예산관련 변수를 총비용지수(TFI)로 변환했듯이 도서관 이용관련 요소를 하나의 변수로 변환하기 위해 본 연구는 노르웨이 오픈란(Oppland)주의 공공도서관 분석에 적용했던 도서관이용 개념을 차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노르웨이 오픈란(Oppland)주의 공공도서관 분석에 적용되었던 도서관이용 개념은 노르웨이 연구기관인 'Telemark Research Institute'¹⁾가 정의한 개념으로, 이 기관은 도서관 이용(Library Usage)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text{Library Usage} = (\text{visits per year}) + (\text{loans per year})/\text{number of inhabitants}$$

이 정의에 따르면 도서관이용은 연간 도서관 방문자수와 연간 대출자료수의 합을 봉사대상 인구로 나눈 값이 된다. 그러나 국내 공공도서관의 경우 봉사대상인구로 나누는 것의 적절성 혹은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봉사대상인구는 공공도서관이 속한 지역구의 인구이다. 이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설치가 봉사대상규모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건립되는 것도 아니고 공공도서관이 어떤 지역에 위치하

1) Telemark Research Institute는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연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연구기관으로 경쟁력 있는 연구 분야로는 문화 정책 연구; 농촌 문화와 경제 발전, 지역 매력에 대한 연구, 지방 공공 재정 및 조직, 건강 및 복지관련 연구 등이다.

〈표 4〉 부산광역시 공공도서관 2013년 도서관이용

(단위: 명, 권)

도서관명	도서관방문자수	자료실이용자수	대출책수	LU1	LU2
부산 강서도서관	128,932	91,123	76,308	2.94	12.79
시립서동도서관	410,520	321,224	189,379	2.37	22.12
금정도서관	730,933	493,671	337,061	4.21	11.83
기장도서관	471,269	393,663	181,301	4.92	16.66
남구도서관	522,055	466,986	202,385	2.48	9.70
시립중앙도서관수정분관	391,748	228,674	141,778	5.56	49.63
동구도서관	160,020	113,290	92,667	2.63	12.18
시립명장도서관	459,828	333,927	156,382	2.23	9.93
시립시민도서관	2,261,383	1,730,036	1,078,693	8.57	15.27
시립부전도서관	1,556,590	1,283,241	586,410	5.50	22.60
시립중앙도서관분관_영어도서관	226,449	191,610	161,065	0.99	31.61
맨발도서관	20,000	11,300	36,918	0.18	6.91
시립구포도서관	1,823,898	1,546,069	698,508	8.14	29.32
북구디지털도서관	525,184	416,053	180,406	2.28	13.51
화명도서관	789,061	660,616	348,513	3.67	21.13
사상도서관	435,388	346,407	239,445	2.73	12.89
시립사하도서관	487,334	347,336	216,804	2.02	15.25
다대도서관	454,895	387,340	237,163	1.98	22.92
시립구독도서관	452,527	269,881	156,086	5.12	19.45
수영구도서관	488,589	285,403	179,375	3.81	11.44
수영구도서관망미분관	281,216	158,274	126,617	2.34	34.74
시립연산도서관	465,581	331,651	212,778	3.24	17.28
영도도서관	474,880	316,359	164,061	4.70	10.66
영도어린이영어도서관	74,600	74,600	29,424	0.77	236.42
시립중앙도서관	624,192	335,117	239,288	18.24	11.76
느티나무도서관	18,950	8,920	13,637	0.08	22.88
시립반송도서관	523,837	359,401	179,293	1.67	20.12
해운대도서관_우동분관	295,827	167,100	94,413	0.92	7.68
시립해운대도서관	1,980,352	1,451,322	618,982	6.11	35.89
반여도서관	151,826	110,537	89,186	0.57	7.66
재송어린이도서관	310,252	249,167	346,457	1.54	16.99
1관당 평균	580,584	434,848	245,509	3.63	25.46

*LU1(Library Usage 1): (연간 도서관방문자수+연간 대출책수)/봉사대상인구

**LU2(Library Usage 2): (연간 도서관방문자수+연간 대출책수)/도서관회원등록자수

자료: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http://www.libsta.go.kr/index.do>

느냐에 따라 도서관의 규모에 상관없이 결정되는 형태라 일부 도서관의 경우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서관이용에 관한 변수를

두 가지를 사용하고자 한다. 하나는 Telemark Research Institute가 정의한 대로 연간 도서관 방문자수와 연간 대출자료수의 합을 봉사대상 인구로 나눈 값을 사용한다. 편의상 이를 '도서

관이용 LU1'이라 한다. 다른 하나는 연간 도서관 방문자수와 연간 대출자료수의 합을 봉사대상 인구가 아닌 도서관회원등록자수로 나누는 값을 사용한다. 편의상 이를 '도서관이용 LU2'라 한다. 물론 잠재적 이용자인 봉사대상인구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서관을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도서관회원등록자수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ext{도서관이용 LU2} = \frac{(\text{연간 도서관이용자수}) + (\text{연간 대출자료수})}{\text{도서관 회원등록자수}}$$

$$\text{도서관이용 LU1} = \frac{(\text{연간 도서관이용자수}) + (\text{연간 대출자료수})}{\text{봉사대상인구수}}$$

〈표 4〉는 도서관이용을 정의하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부산지역 31개 공공도서관의 2013년 도서관 이용지수 산출 결과이다. 산출 결과를 보면, 2013년 부산광역시 공공도서관의 도서관 이용 LU1은 최저 0.08에서 최고 18.24의 값이 존재한다. 한편 도서관이용 LU2는 최저 7.66에서 최고 236.42의 값을 가지며, 당연한 결과지만 도서관이용 LU1에 비해 값이 상승하였다.

4. 도서관 총비용과 도서관 이용과의 영향관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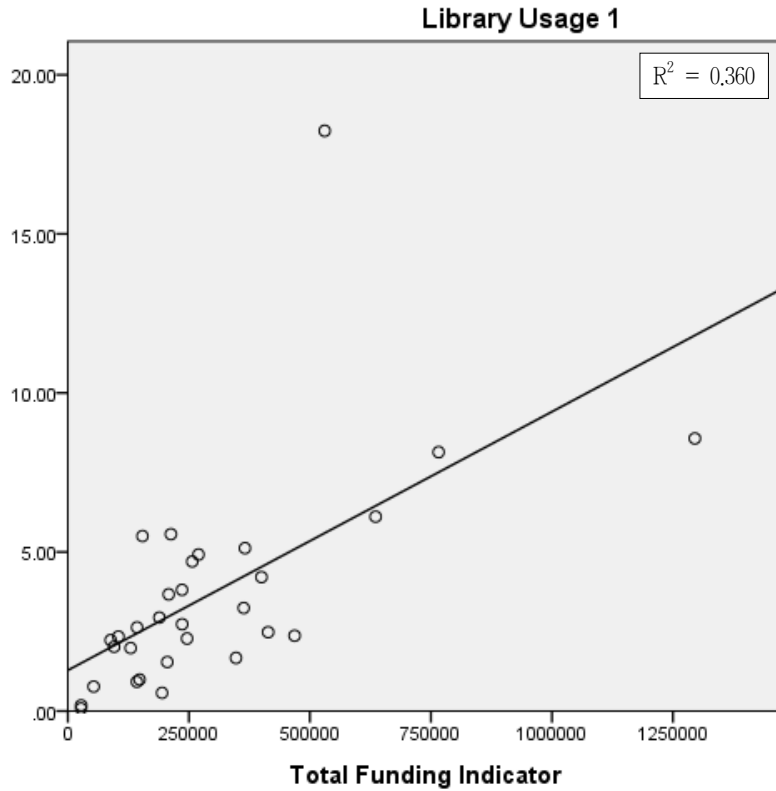
도서관 예산과 이용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SPSS Statistics 22를 이용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 즉 인건비, 자료구입비와 종속변수인 도서관이용(Library Usage)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분석에 앞서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도서관이용 LU1과 인건비와의 상관계수 값은 0.615, 자료구입비와의 상관계수 값은 0.468로 나타났다. 도서관이용 LU2와 인건비와의 상관계수 값은 0.196, 자료구입비와의 상관계수 값은 0.548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도서관이용 LU1은 인건비와 자료구입비 모두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반면, 도서관이용 LU2는 자료구입비와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반면 인건비와는 관련성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와 자료구입비 두 변수 모두가 도서관 이용에 긍정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이 결과가 두 변수 중에 어떤 하나가 명백하게 다른 변수보다 도서관이용에 보다 많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하나의 변수를 사용하되, 두 변수 모두를 고려하면서 각각의 중요성을 반영할 수 있는 앞서 설명했듯이 인건비와 자료구입비를 곱한 값의 루트값인 총비용지수(TFI)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4.1 총비용지수(TFI)와 도서관이용 LU1과의 관계

부산지역 31개 공공도서관의 2013년 데이터를 갖고 분석한 결과, 도서관 총비용지수(TFI)와 도서관이용 LU1과의 관계는 〈그림 1〉과 같이 나타났으며 R²의 값은 0.360이다. 도서관 이용 LU1은 도서관 이용자를 봉사대상인구로 고려한 경우이다. 이 결과는 도서관 현장관계



〈그림 1〉 총비용지수(TFI)와 도서관이용 LU1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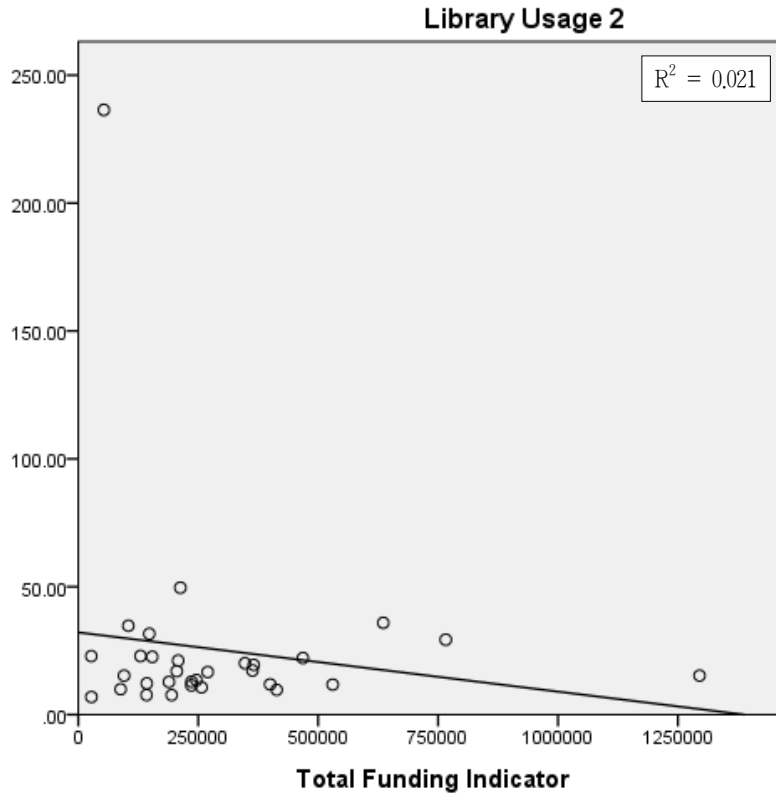
자들의 의견, 즉 도서관예산이 도서관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옳은 주장이었다는 것을 뒷받침 한다고 할 수도 있다. 인건비와 자료구입비에 보다 많은 비용을 투입하면 할수록 도서관이용 또한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4.2 총비용지수(TFI)와 도서관이용 LU2와의 관계

한편 동일 연도의 데이터와 부산지역 31개 공공도서관이라는 동일한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도서관 총비용지수(TFI)과 도서관이용 LU2와

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2〉와 같이 나타났다. R²의 값은 0.021이다. 도서관이용 LU2는 도서관 이용자를 봉사대상인구가 아닌 도서관회원등록자수로 가정했을 때를 의미한다. 〈그림 2〉에서 보듯이 도서관이용 LU1의 경우와 달리 도서관이용 LU2의 경우는 둘의 영향 관계를 설명해 주지 않고 있다.

이는 상관관계분석에서 이미 예견되었던 결과이다. LU2와 자료구입비는 높은 상관성을 나타낸 반면, 인건비의 경우는 상관성이 매우 미미하게 나타났으므로, 비록 총비용지수(TFI)로 변환하였다 할지라도 상관성이 거의 없는 인건비가 포함될 경우, 도서관이용 LU2와 예산과



〈그림 2〉 총비용지수(TFI)와 도서관이용 LU2과의 관계

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경향성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두 경우의 분석에서 다른 결과가 나타난 원인은 무엇일까? 즉, 인건비가 도서관이용 LU2와의 상관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도서관 예산규모에 비해 도서관등록회원의 경향성이 비예측적이라는데 있을 수 있다. 이는 봉사대상인구와 도서관등록회원이라는 이용자의 다른 특성이 그 원인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도서관이용 LU2에 활용된 도서관회원등록자의 특성은 해당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의사를 가진 자로서, 지리적인 여건, 해당도서관 소장자료의 특성, 어린이도서관 혹은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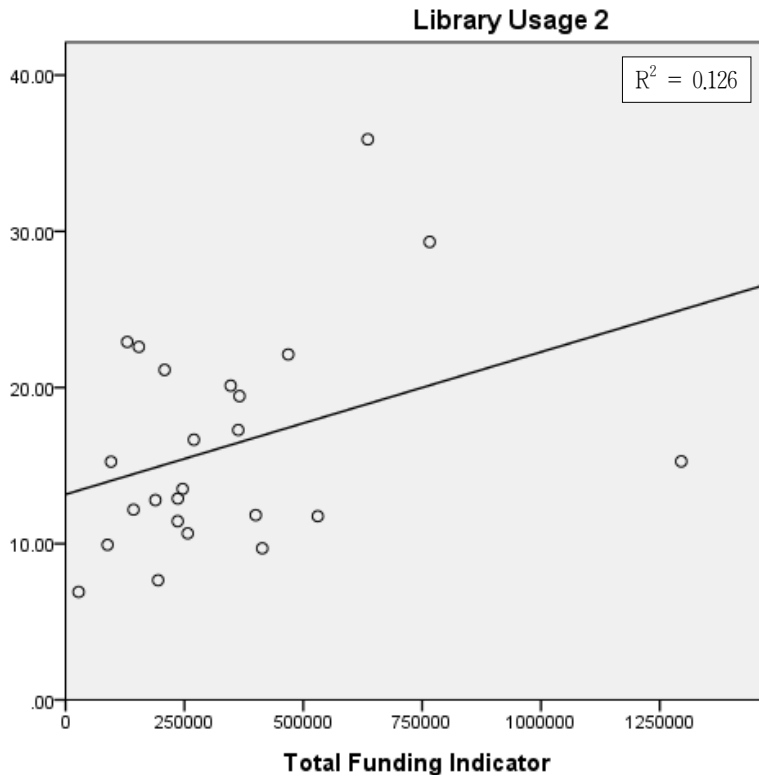
어도서관 등 도서관의 자료적 대상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과 지속적 이용의사를 전제로 한다. 예를 들면, 부산시립중앙도서관수정분관, 수영구도서관망미분관 등은 해당도서관이 위치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부산시립중앙도서관 영어분관, 영도어린이도서관, 느티나무도서관 등의 경우는 도서관의 특성으로 인해 도서관이용 LU2가 도서관이용 LU1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타 도서관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표 4〉 참조). 이는 이들 도서관의 도서관이용은 도서관의 투입자원에 좌우되기보다는 해당도서관의 지리적, 대상적, 자료적 특성, 즉 차별화된 어떤 특

성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도서관 총비용지수(TFI)와 도서관이용 LU2와의 분석에서 그대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도서관의 보다 많은 예산의 투입은 도서관등록이용자들의 도서관이용을 증진시키지 못하는가? 이를 설명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이지만 어떤 차별화된 특성, 분관이라는 지리적 특성, 영어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등의 자료적, 대상적 특성 등을 제거한 상태에서 도서관의 총비용지수에 의한 도서관이용 LU2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는 R²의 값은 0.126이며 <그림 3>과 같이 나타났다. 특성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

에서의 분석결과 <그림 2>와는 비록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첫 번째 분석에서 만큼 도서관 자원의 투입이 도서관이용 증진을 초래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다.

두 경우의 분석결과를 볼 때, 도서관총비용의 증가는 봉사대상인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도서관이용을 증진시킨다고 할 수 있지만, 적극적인 의사를 가진 회원등록자들의 도서관이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의사를 가진 도서관회원등록자들의 도서관이용은 자료구입비와 크게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자료의 차별성이 도서관이용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 특성 제거후 총비용지수(TFI)와 도서관이용 LU2와의 관계

5. 논의 및 제언

매년마다 다음해 사업을 위한 예산배정시기가 다가오면 공공도서관은 교육청 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서관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그리고 이에 대한 당위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오랫동안 많은 자료를 준비한다. 도서관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은 도서관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지만, 그 의견이 항상 설득력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는 도서관 현장 관계자들의 상투적인 푸념처럼 치부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예산이 도서관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고자 수행되었다

여러 연구자들은 도서관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많은 연구를 진행해왔다. 예를 들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혹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개인의 도서관이용 행태, 인구사회학적 특성, 개별도서관의 서비스 자원 투입 및 산출특성, 지역적 특성, 거주지역의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투자수준 등을 조사하여 도서관 이용과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많은 연구들이 도서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도서관이용의 충성정도에 따라, 연령에 따라, 교육 및 소득수준에 따라, 도서관의 산출 및 투입의 특성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따라 이용요인이 다르게 나타났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도서관 이용요인의 다양한 발견은 도서관 이용증진을 위한 투입의 우선순위 혹은 개선방향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 의사결정권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도서관 이용증진을 위한 다양한 요인분석보다는 단순하게 사서들이 주장하는 도서관 예산의 증가는 도서관이용을 도모한다는 관계를 설명하고자 했다. 분석을 위해 변수설정을 위한 개념정리를 하였다. 변수설정 및 변수의 사용은 노르웨이 오픈란(Oppland)주의 26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 예산과 이용과의 관계를 연구한 Stabell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독립변수는 예산관련변수를 종속변수는 도서관 이용관련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로 사용한 예산관련 변수로는 도서관이용과의 분석을 통해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 인건비와 자료구입비 두 요소를 모두 고려한 '총비용지수(TFI)'를 사용하였으며, 총비용지수(TFI)는 인건비와 자료구입비를 곱한 값의 루트값($TFI = \sqrt{\text{인건비} \times \text{자료구입비}}$)에 의해 산출되었다. 종속변수인 도서관 이용관련 변수는 노르웨이의 Telemark Research Institute가 정의한 도서관이용 개념을 차용하였으며, 'LU(Library Usage) = (visits per year) + (loans per year)/number of inhabitants'에 의해 산출되었다. 이 개념을 차용하되, 본 연구에서는 2가지 경우로 차별화하여 도서관이용지수를 산출하였다. 첫 번째 도서관이용지수 LU1은 봉사대상인구수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으며, 두 번째 도서관이용지수 LU2는 봉사대상인구수 대신 도서관회원등록자수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

$$LU1 = (\text{연간 방문자수}) + (\text{연간 대출책수}) / \text{봉사대상인구수}$$

$$LU2 = (\text{연간 방문자수}) + (\text{연간 대출책수}) / \text{도서관회원등록자수}$$

이렇게 결정된 변수를 사용하여 도서관총비용지수(TFI)와 도서관이용(LU)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3번의 분석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부산지역 31개 공공도서관의 2013년 데이터를 갖고 도서관총비용과 도서관이용 LU1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도서관예산은 도서관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동일 연도의 데이터와 동일 집단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용자를 봉사대상인구가 아닌 도서관회원등록자수로 산출한 도서관이용지수 LU2와의 분석결과는 도서관이용지수 LU1과 달리 둘의 관계를 설명해주지 않았다. 세 번째 분석에서는 두 경우의 분석에서 다른 결과가 나타난 원인을 일부도서관이 가진 대상적, 자료적, 지역적 특성 등이 반영된 충성도가 높은 이용자들의 이용성이 도서관예산과 도서관이용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벗어나게 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도서관들을 제외한 상태에서 도서관 총비용과 이용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첫 번째 분석만큼 도서관의 총비용이 도서관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나타내지는 못했지만 둘은 영향관계가 있었다.

분석 결과를 볼 때, 적극적 이용자가 아닌 잠재적인 이용자를 도서관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예산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도서관 예산을 배정하는 기초 및 광역자체 단체들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보다 높은 가치의 사회·문화·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을 원한다면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도서관이용을 촉진하는 다양한 요인이 있어 이 분석결과만을 갖고 이분법적으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도서관예산의 수준이 도서관이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핀란드, 노르웨이 그리고 네덜란드 3국의 도서관이용을 분석한 Vakkari et al.(2014)의 연구와 노르웨이 오프란(Oppland) 주의 26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Stabell(2015)의 연구와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 Vakkari 등은 국가별로 도서관이용의 차이를 설명하는 주요 요소로 도서관서비스에 투자된 자원을 제시하였으며, Stabell은 도서관예산과 도서관이용과의 관계분석에서 예산이 도서관이용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R^2=0.655$)고 결론지었다. 도서관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높이 평가할 만한 공공서비스기관이다. 높은 가치를 가졌지만 이용되지 않고 있는 도서관의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원의 투입이 필요하다. 필요한 모든 자원이 반드시 돈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돈에 관한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가 갖는 한계로는 부산광역시 공공도서관이라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분석 대상연도를 2013년으로 한 해에 국한하였기에 이 연구에서 발견된 내용을 일반화하여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가 갖는 효과는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 핀란드, 노르웨이 그리고 네덜란드 3국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적 혜택에 관한 비교연구와 노르웨이 오프란(Oppland) 주의 26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예산과 도서관이용과의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추가의 연구에서는 이 연구의 프레임 워크 내에서 가설을 보다 보완하고 정교화하여 그 견고성을 테스트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한 지역이 아닌 전국적 단위의 더 많은 샘플과 분석기간의 다년화 등을 목표로 하여 자원 혜택과 도서관이용 사이의 관계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화된 도서관 투자 수준과 이용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후속작업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권나현, 송경진. 2014. 한국성인의 공공도서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분석: 개인, 도서관의 특성 및 자치단체의 도서관 투자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4): 291-312.
- 박옥화. 2007. 공공도서관 고령이용자에 대한 연구: 대전지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1): 375-396.
- 이희수, 김기영. 2014.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지역주민의 도서관 요구에 관한 연구: 3개의 지역유형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1(1): 207-230.
- 최희곤. 2009.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정보관리학회지』, 26(4): 129-145.
- Løyland, Knut and Vidar Ringstad. 2008. "Determinants of Borrowing Demand from Norwegian Local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9(8): 1295-1303.
- Løyland, Knut and Vidar Ringstad. 2011. "Borrowing demand at local public libraries in Sweden."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3(4): 284-292.
- Ringstad, Vidar and Knut Løyland. 2006. "The Demand for books estimated by means of consumer survey data."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30(2): 141-155.
- Stabell, Øisten. 2015. "Library usage and resources" *Scandinavian Library Quarterly*, 48(1-2). <<http://slq.nu/?article=volume-48-no-1-2-2015-11>>.
- Vakkari, P., S. Aabø, R. Audunson, F. Huysmans, and M. Oomes. 2014. "Perceived outcomes of public libraries in Finland, Norway and the Netherlands." *Journal of Documentation*, 70(5): 927-944.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i, Hee-kon. 2009. "An Analysis of Impact Factors on the Number of Users of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6(4): 129-145.

- Kwon, Nahyun and Kyeong-Jin Song. 2014. "A National Study Explaining the Pubic Library Use among Korean Adults: Examining the Influence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Local Library Inputs, and Local government Investment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5(4): 291-312.
- Lee, HeuiSoo and Giyeong Kim. 2014. "Study on the Needs of Local Residents for Library Services Based on community Characteristics: Focusing on Three Types of Local Communit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1): 207-230.
- Park, Ok-Wha. 2007. "A Study on the Elderly of Public Librarie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8(1): 375-396.